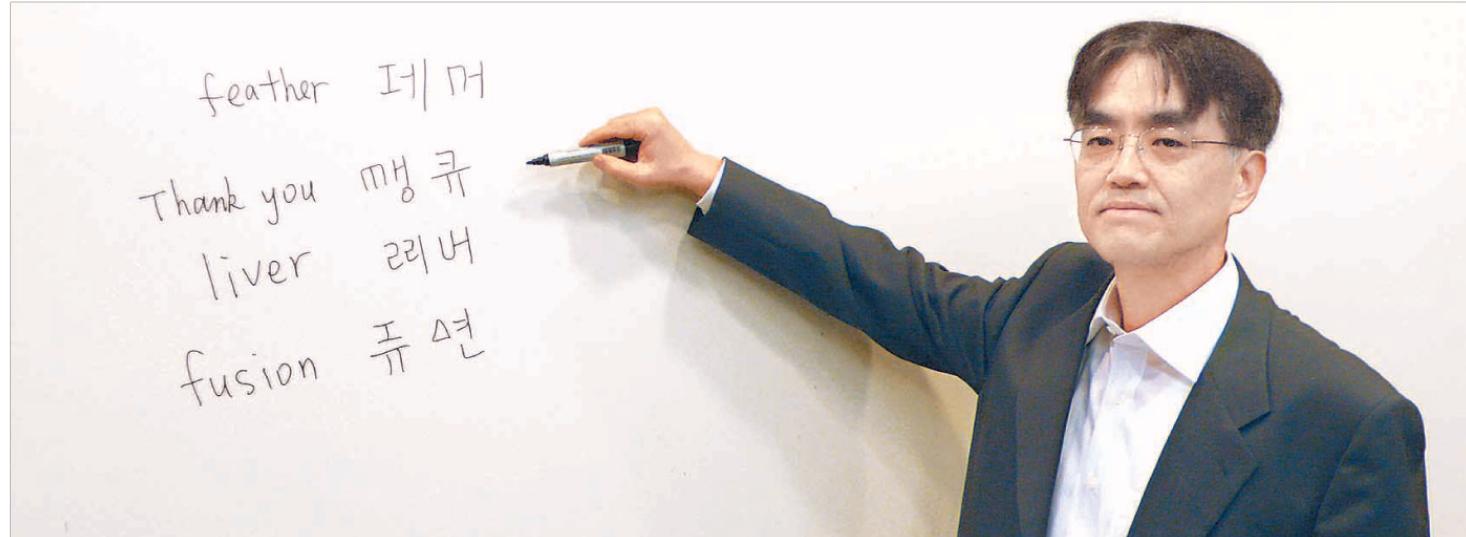


V나 F 같은 영어 알파벳 발음을 한글로 정확히 표기할 수 없다. 학술대회에 온 외국인을 위해 한 교수가 나섰다. 그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참고해 자음 다섯 자를 만들었다. 얼핏 보면 외계어 같지만 외국학자들은 배워 보겠단다. 홍릉 고등과학원엔 그들만의 한글이 있다.



고등과학원 수학부 최재경 교수가 자신이 개발한 자음을 칠판에 적어 보이고 있다. 최 교수는 “우리말에 없는 외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근태 동아사이언스 기자 kulta@donga.com

## 어느 기하학자의 한글 창제

### ■ 고등과학원 최재경 교수 이색 시도

‘ㅁ’ ‘ㅍ’ ‘ㅈ’ ‘ㅌ’ ‘ㅋ’

서울 홍릉 고등과학원 원내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글자다. 언뜻 보면 인터넷을 떠도는 ‘외계어’ 같지만 전 세계 수학 석학들이 모인 정식 학회에서 소개된 엄연한 글자다. 이를 글자는 모두 고등과학원 수학부 최재경 교수가 만들었다. 최 교수는 “우리말에는 없는 외국어 발음을 표시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었다”고 말했다.

#### ● 한글 창제 원리 응용

이들 글자가 처음 선보인 것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월 고등과학원이 개최한 ‘기하학회’에 참가한 25명의 외국 수학자는 행사 팜플릿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한 표에 별도로 글자들이 적혀 있던 것.

이를 본 몇몇 한국 교수는 “글자가 깨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리말에 없는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었다고 최 교수 가 답변하자 학회에 참석한 25명의 외국 수학자는 큰 관심을 보였다. 미국 매사추세츠 대 로버트 커스너 교수는 “최 교수의 아이디어가 재미있다”며 “미국으로 돌아가 꼭 써 보겠다”고 했다.

기하학자인 최 교수가 우리말

발음에는 없는 문자를 만든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올라간다. 수학만큼이나 국어에 관심이 많던 그는 영어 알파벳의 ‘v’와 ‘f’는 왜 정확히 표기할 수 없을까란 의구심이 들었다. 그리고 발음 표기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다.

당시 최 교수가 만든 방식은 직관적이다. 그는 발음이 비슷한 자음은 한 획을 더해 만든다는 한글 창제의 원리를 적용했다.

그는 알파벳 ‘v’는 완벽한 ‘ㅂ(비읍)’으로 발음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한 획을 뺐다. ‘f’ 역시 ‘ㅍ(피웁)’보다 약하게 들려 한 획을 뺐다. 그렇게 나온 글자가 ‘ㄴ’과 ‘ㅌ’이다. 물론 ‘v’ 발음에 가깝지만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순경음비읍(崩)도 있다. 하지만 획수가 너무 많고 음절 하나가 너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잠시 관심을 접고 수학자의 길을 걷던 최 교수가 글자를 다시 추가한 것은 11년 전. 포스텍(당시 포항공대)에 재직하던 그는 z, ㅊ, ㅋ 발음을 표기하는 자음 3개를 더했다. 그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따라 ‘ㅈ’에 한 획을 붙여 ‘ㅈ’을 표시하는 ‘ㅈ’을 만들었다.

영어 정관사 ‘the(더)’에서 ‘ð’ 발음을 ‘ㄷ’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 **최재경 교수 만든 5개 자음과 용례**

[v]	[f]	[z]	[ð]	[θ]
리버 river	페머 feather	리버 river	페머 feather	리버 river
줌업 zoom up	밸리 valley	줌업 zoom up	밸리 valley	줌업 zoom up
텔레폰 telephone	쎄븐 seven	텔레폰 telephone	쎄븐 seven	텔레폰 telephone

‘ㅁ’로 표기했다. 한국인이 발음하기 어려운 ‘thank’의 애매한 ‘θ’를 발음은 ‘ㅆ’ 대신 ‘ㅋ’로 바꿨다. 최 교수가 만든 글자를 쓰면 사람 이름 ‘David’는 ‘데이비드’가 아닌 ‘데이니드’로, 영을 뜻하는 ‘zero’는 ‘제로’가 아닌 ‘즈로’로 쓴다.

#### ● 한글 수출, 외국인에게 보탬 되길

국어학자도 아닌 수학자가 만든 자음을 보는 시각은 둘로 나뉜다. 최 교수가 만든 글자를 본 한국 사람은 ‘반대’, 외국인은 ‘찬성’이라고 한다. 그의 아내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조차 “세종대왕이 만든 아름다운 한글을 훼손한다”며 반대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 수학자들은 “한글 자음에 없는 발음을 제대로 표기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한국 사람을 위해 만든 글자가 결코 아니다”라며 “고등과학원이 여는 학술행사 때 외엔 이 글자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글자가 없어도 고유한 말을 표현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각국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온누리 한글표기법’을 제시한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정원수 교수는 “한글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 그간 여러 국어학자가 표기법을 확대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며 “최 교수의 경우도 일부 수정 보완할 점이 있지만 흥미롭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도 “전 세계에 문자가 없는 6000여 종족에게 한글을 수출할 때나 자기 이름이 우리말로 정확히 불리기 원하는 외국인이 쓰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한 해 40회의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하는 고등과학원은 이달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 학자에게 한글을 소개하면서 최 교수 만든 5개 자음도 함께 소개하기로 했다.

박근태 동아사이언스 기자  
kulta@donga.com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유네스코)는 한글이 표음문자 중 자음과 모음이 풍부하고 제자(制字) 원리도 합리적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로 인정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 말이든 한글로 적은 뒤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외국인이 이를 읽으면 그 나라 말에 가장 가까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국제음성기호 [k t p]를 영어로는 [크 트 프]로 발음하고 프랑스어로는 [꼬 뜨 뿐]로 다르게 발음하는데 한글은 이 차이를 분명하게 적을 수 있다.

이처럼 훌륭한 한글의 제자 원리를 응용하면 외국어의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 최 교수처럼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수고를 덜 수 있다.

훈민정음 제자해(制字解)의 용자례(用字例)에는 순경음(脣輕音)이 나온다. 순경음을 국제음성기호에 맞춘다면 ‘崩’은 [v], ‘痛’은 [f]에 해당한다. 그리고 ‘ㅈ’은 [z]에 해당하므로 [v f z]를 위해 새로 글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

문제는 [ð] [θ]인데 이는 규정에 없으므로 글자를 새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것도 순경음의 예에 준하여 [ð]는 ‘등’, [θ]는 ‘등’로 하면 어떨까.

이를 최 교수가 만든 표기 방법과 비교하면 very의 ‘베리’는 ‘베리’로, fan의 ‘팬’은 ‘팬’으로, zet의 ‘제트’는 ‘제트’로, the의 ‘这个职业’은 ‘这个职业’로, thank you의 ‘땡큐’는 ‘땡큐’로 적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제자 원리와 글자 모양에서 특별한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나라 안팎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느 기하학자의 한글창제’에 대한 원로 국어학자의 제언

“제자 원리 응용하면 새 글자 만들 필요없어”



본보 10월 19일자 플러스 과학면(A25면)에 실린 ‘어느 기하학자의 한글창제’ 기사를 읽고 원로 국어학자인 이웅백(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글을 보내왔다. 건전한 논의를 위하여 요약해 게재한다.

고등과학원 최재경 교수가 한글 창제의 원리를 응용해 ㄴ[v], ㅁ[f], ㅈ[z], ㅌ[ð], ㅋ[θ]와 같은 글자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국어학자가 아닌 수학교수로서 일찍부터 이 방면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를 해온 데 경의를 표한다.